

“홀로 저를 키우는 엄마와 여행해 봤으면” “동생에 새 코트 사주고 싶어” 가슴 찡한 소원들 현실로 ‘크리스마스의 기적’

광주 서구 ‘소원 성취 프로젝트’ 초등생 245명 가정에 전달

“혼자서 힘들게 저를 키워주시는 엄마와 함께 제주도 바다를 보고 싶어요.”
광주 서구 상무2동 박모(8)군은 엄마와 함께 떠나는 생애 첫 제주도 여행을 떠올리며 성탄절에 이루고 싶은 소원을 편지에 적었다. 박군은 아빠 없이 세 명이 사는 가족이 여태 가족 여행 한 번도 제대로 간 적이 없다며 자신의 소원을 꼭 들어달라고 기원했다.
치평동에 사는 박모(12)군은 “할아버지와 사는 저희 가족에선 쌀과 반찬을 성탄 선물로 주세요. 나이 들어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는 돈을 벌 수 없고 나라에서 주는

생계비 만으로는 먹을 게 부족해요”라는 사연을 연필로 꼭꼭 눌러 담았다.
서구청 공무원들은 박군이 띄운 편지를 보며 한동안 가슴이 아렸다고 한다. 성탄절 선물로 바라는 게 쌀과 김치 등 반찬이라는 초등학생에게 던져진 무거운 현실을 떠올리면서다.
동천동에 사는 조모(10)군은 “집에 돈이 없어 항상 제 옷만 물려받는 남동생에게 항상 미안했어요. 동생에게 멋진 새 코트를 사주고 싶어요”라고 적은 편지를 서구청에 보내왔다.
상무2동에 사는 박군, 치평동에 사는 또

다른 박군, 동천동 조군 등 초등학생들의 가슴 찡한 바람은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이뤄진다.
광주 서구가 ‘희망플러스 소원성취 프로젝트’를 통해 공모한 초등학생 425명 사연 가운데 이들을 포함한 245명을 선정해 소원을 들어주기 19일 결정했기 때문이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공모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 45건, 갖고 싶거나 선물하고 싶은 물품 194건, 평소 해보고 싶었던 활동 6건 등이 선정됐다. 아이들이 가고 싶은 곳,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에는 저마다 몽글몽글한 사연이 담겼다.
올해에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권동식 아반티노제단, 광주 서구 지역사회보장협

의체 한가족나눔분과·기독교단협의회·약사회가 소원성취 후원자로 나서 성금 8000만원을 모았다.
서구가 발족한 사랑의 희망산타는 지역 아동센터·종합사회복지관·청소년수련원과 연계해 성탄절 이브 각 가정에 소원을 전달한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여 건전한 성장을 돕고 나아가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들의 작은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후원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AI 때문에 ... “우치동물원 휴장합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19일 광주 서구 우치동물원 입구에 임시휴장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동물원은 선제적 예방차원에서 20일부터 한시적 휴장을 결정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AI 확산 ... 지역 관광지에도 한파 몰고온다

순천만습지 폐쇄, 고천암호·금호호·영암호 출입 제한

나주·구례 고병원성 여부 검사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지역에서도 순천만습지와 우치동물원 등 조류가 있는 지역 탐방 명소가 잇따라 폐쇄되고 있다.
순천시는 인접한 구례군에서 AI 양성 이 확인됨에 따라 19일부터 순천만습지를 잠정 폐쇄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순천만 갈대숲 탐방로에서 용산전망대에 이르는 탐방로와 용산전망대로 진입하는 남도삼백리길 등이 전면 폐쇄됐다.

순천만 에코피아 등 탐조선 운항도 전면 중단하고 순천만습지 일원의 순천문학관과 순천만자연생태관, 소리체험관 등 주요 전시시설 관람 제한과 함께 순천만 인근 농경지에 대한 진입도 통제한다.
순천만습지는 국내 대표적인 흑두루미 월동지로 평일 3000여명, 주말 7000여명의 탐방객이 방문하는 국내 대표적인 생태 관광지다.
이에 앞서 해남군은 지난 15일부터 AI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내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인 고천암호, 금호호, 영암호 등 3곳에 대한 일반인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광주 우치동물원도 20일부터 휴장에 들어갔다. 광주시 우치공원사무소는 “서울 대공원에서 사육해온 황새가 잇따라 폐사하는 등 전국적으로 AI 확산이 우려돼 20일 오전부터 동물원을 임시 휴장한다”며 “재개장 시기는 AI 진정 여부 등을 보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나주 남평과 구례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H5N6형으로 확진돼 고병원성 여부를 정밀검사 중이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5일과 17일 나주시 남평읍과 구례군 용방면의 육육오

리농장에서 발생한 AI 바이러스는 기존에 확인됐던 H5N6형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두 농가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를 정밀검사 중이며, 해당 농장은 물론 반경 3km 이내 농장의 가금류도 모두 살처분했다. 전남에서 현재까지 발생한 AI 건수는 해남 1건, 무안 1건, 나주 5건, 장성 1건, 구례 1건 등 9건이며, 강진과 해남의 야생조류 서식지에서도 4건의 고병원성 H5N6형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27개 농가에서 49만8000마리를 살처분했으며, 보상금(추정치)은 50억원이다.
기존 발생지는 대부분 철새도래지가 인근에 있어 감염경로가 철새로 추정되고 있지만 구례의 경우 농장 주위에 철새도래지가 없어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6 해질 17:24 달출 12:09 달짐 12:09

내일 광주-전남 많은 비
고기압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이 많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전남	전북	충청	경상	강원	제주
광주	구름많음	9/15	보성	구름많음	6/13		
목포	구름많음	7/13	순천	구름많음	8/15		
여수	구름많음	9/14	영광	구름많음	7/14		
나주	구름많음	7/15	진도	구름많음	7/14		
완도	구름많음	9/14	진주	구름많음	7/15		
구례	구름많음	5/14	군산	구름많음	6/14		
강진	구름많음	7/15	남원	구름많음	6/14		
해남	구름많음	6/14	옥산도	구름많음	8/11		
장성	구름많음	7/14					

◇ 바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	북동~동	0.5~1.0
남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동~동	0.5~1.5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북동	0.5~1.5	북동~동	1.0~2.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북동	1.0~1.5	북동~동	1.0~2.0

◇ 생활지수

보통	8/15
뇌졸중	12/13
감기	2/3
관심	-1/5
체감온도	-2/8
	3/8
	1/6

◇ 주간 날씨

날짜	21(수)	22(목)	23(금)	24(토)	25(일)	26(월)	27(화)
날씨	☁	☁	☁	☁	☁	☁	☁
기온	8/15	12/13	2/3	-1/5	-2/8	3/8	1/6

사회적기업 “광주시, 청년 죽이는 갑질행위 중단하라”

무대설치비 등 떠넘겨

광주시청앞 1인 시위

광주의 한 사회적 기업이 광주시 청년 육성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광주시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광주시가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관 기관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대 설치 업체를 선정해 통보하는가 하면, 그 비용조차 부담하게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다.
사회적 기업 ‘잇다’ 대표 이순환(여·33) 씨는 19일 광주시청 앞에서 “청년을 죽이는 광주시 청년인재육성과 갑질 행위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씨는 “광주시가 지난 21일 동구 금

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청년도시 콘퍼런스 무대 설치 비용 1600만원을 총당기로 했다가 협의도 없이 우리가 받는 용역비 8200만원에서 부담하라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무대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행사를 총괄하는 우리가 아닌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내정,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이 과정에서 행사가 끝났는데도 계약 기간인 지난 11월 말 이후 현재까지 규정이 없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잔금 41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게 대표 설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와관련, “현재 갑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학부모 60% “춧불집회 참여 자녀 역사공부 도움”

윤선생 569명 설문조사

학부모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춧불집회 같은 현장에 다녀오는 것이 자녀의 역사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영여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에 따르면 이날 8~13일 자녀를 둔 학부모 56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춧불집회 같은 현장에 자녀와 동행하는 것이 역사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는지에 대해 62.5%가 ‘그렇다’고 답했다. ‘아니다’라고 밝힌 응답자는 14.6%에 그쳤다. 역사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학부모 가운데 38.0%는 실제로 춧불집회에 자녀를 데려가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95.4%는 자녀의 역사 공부가 중요하다(중요하다 50.6% + 매우 중요하다 44.8%)고 답했다. ‘보통이다’가 4.6%였고,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학부모는 1명도 없었다.
/연합뉴스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겨울을 뜨겁게 달굴 2016 겨울방학 특별기획

세계희귀절지동물 특별전

2016년 12월 24일(토) ~ 1월 22일(일) *월요일 휴관

장소: 남원시 운봉읍 운봉로 151 | ☎ 063) 620-5751~5754

운영시간: 오전10시 ~ 오후5시